

목포 김 수출액 역대 최대·전국 최고 성과

지난해 1억7500만달러…4년 연속 마른김 수출 전국 1위
핵심 전략산업 설정…품질 관리·유통 구조 개선 등 효과

목포시의 김 수출액이 1억7500만달러(약 2500억원)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2025년 김 수출액이 전년대비 32% 증가한 1억7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으로 마른김 수출 역시 4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했다.

국내 김 수출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김 수출액은 11억3300만달러를 넘어섰으며,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그 동안 김 산업을 지역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설정하고 산업기반을 단계적으

로 확충해 왔다. 김 산업 전문기관 지정과 진흥구역 조성, 마른김 거래소 도입 추진, 김 산업진흥원 설립 유치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목포 김은 지역 수산식품 수출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부 제1호 김 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김 산업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AI 기술을 접목해 마른김 품질 등급 기준 마련과 국제 공인시험기관(KOLAS) 인증 확보를 통해 지역 가공업체의 해외시장 신뢰도도 높이고 있다.

또 수산식품수출단지 준공과 함께 2026년 마른김 거래소 개장을 목표로 관련 사

업이 추진 중이다. 총 1137억원이 투입되는 수출단지에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위한 시설과 대규모 거래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내 1300㎡ 규모의 마른김 거래소도 들어설 예정으로,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품질·안전관리 표준화, 유통 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마른김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론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거래소는 오는 11월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영매 목포시 수산산업과장은 “품질 관리와 유통 구조 개선에 집중한 것이 해외시장 신뢰도로 이어졌다”며 “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목포시 지난해 김 수출액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 1억75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고속도로 연결 ‘순항’…해남~광주 30분 단축된다

연말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통…해남~강진도 설계 예정

옥천·북평에 나들목 2개소 설치…대행사 나들목도 건의

광주~해남~완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순항하며 광역도시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광주~강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해남에서 광주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8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된다.

올해 완공되는 노선은 광주시 서구 벽진동에서 출발해 강진군 성전면에서 남해고속도로와 분기점(JCT)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진에서 해남 남창을 잇는 2단계 구간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7월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실시 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노선은 강진군 성전면에서 시작해 해남군 옥천면과 북일면을 거쳐 북평면까지 연결된다. 현재 총 2개의 나들목(IC)이 계획돼 있으며, 옥천면 성산리에 국도 18호선과 연결되는 해남 나들목(IC)과

현산면 월송리와 북평면 남창리 사이 국도 13호선과 연결되는 남해남 나들목(IC)이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해남군은 옥천면 만의총 문화재 구간과의 간섭 가능성이 나타날 경우 해남 나들목 노선을 해남읍 방향으로 조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중이다. 또 대표 관광지인 대흥사를 비롯해 국내 최대 농업연구단지, 제2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대흥사 나들목(IC) 설치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2034년 개통이 목표로,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돼 교통박물관, 대흥사, 팔골 등 해남의 주요 관광지가 광주권 근교 나

들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수산물 물류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대학병원 등 광역 의료시설 접근성 향상으로 군민 생명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대형 사회기반사업은 지역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적기에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속도로망이 완성되면 관광객을 비롯한 생활인구가 해남군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순천, 이상기후 대비 과수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현장 중심 기술 보급…농가 소득 향상 기대

순천시는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재배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수 분야 농촌진흥청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재배 기술 개선을 통해 과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노동력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개화기 저온, 여름철 폭염, 결실 불량, 일소 피해, 병해 발생 등 복합적인 피해가 지속되면서 과수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재배 구조 개선과 기상 재해 대응 기술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는 과수 재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상 재해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재배 구조 개선, 결실 안정 품종 다양화 등을 중심으로 한 농촌진흥청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 시범 사업은 노동력 절감 및 이상 기상 대응을 위한 과수 다층재배 조성 시범(7000만원), 개화기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한 과수 저온피해 대응 약제 기술 시범(1500만원), 신소득 유망 과수의 결실 향상을 위한 플립코트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3000만원), 속기 분산을 통한 안정 출하 기반 마련을 위한 복숭아

품종 다양화 시범(1억원), 폭염·서리·조류 피해 등에 대응하는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1억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시는 노지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신기술 도입 의지가 강하고 사업 효과 분석이 가능한 농가 등을 우선 선정해 현장 기술 지도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기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과수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검증된 기술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이번 시범 사업이 농가 소득 증대와 노동력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식 기자 2556pk@gwangnam.co.kr

나주, 글로벌 첨단과학 중심지 도약

인공태양·에너지국가산업단·K-그리드 등 집적화

‘에너지수도’ 나주시가 글로벌 에너지 정책과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을 비롯해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K-그리드), 국립 나주에너지전도과학관,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 이르기까지 연구·산업·교육·국제협력이 한 곳에 모여면서 나주가 글로벌 첨단과학 도시로의 도약하고 있다.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탄소 배출이 없고 연료가 사실상 무한해 인류 에너지 문제의 해법으로 평가받는다. 나주시왕곡면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인근 특화부지에 조성될 해당 시설은 1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 대형 연구 프로젝트로, 2030년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조성되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기재, 에너지 ICT, 수소, ESS 등 미래 에너지 기업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과 대중 인식 확산을 위한 기반도 함께 구축된다.

빛가람혁신도시산·학·연·클러스터 부지에 들어설 국립 나주에너지전도과학관은 전국 유일의 국가 차원 에너지 특화 과학관으로, 에너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시·체험·교육 공간으로 조성된다.

국제 협력과 답론 형성의 장인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6’은 9월 개최 예정으로, 세계 에너지 석학과 국제기구, 정책결정자,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는 연구와 산업, 교육과 국제 교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에너지 전주기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비롯한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차질 없이 연계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에너지 첨단과학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진 기자 pose007@



구례, 산불예방·미세먼지 저감 총력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구례군은 산불예방과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하나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적극 운영한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한 가운데 연평균 51.5ha의 파쇄 성과를 달성했다. 산림과 인접한 농경지 분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파쇄지원단 운영은 산불 예방 효과는 물론 영농부산물 소각 무효성 인식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건조기에는 영농부산물 소

각 불티로 인한 산불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농업인 홍보와 파쇄지원을 병행한다.

군은 지난 19~20일 파쇄기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으며, 1월부터 본격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집중 파쇄기간은 상반기(1~5월)에 영농부산물과 과수 잔가지, 하반기(9~12월)에는 밭작물 부산물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은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고령농업인 농작업 부담 경감에도 실효성이 크다”며 “파쇄지원단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영암, 상대포공원~계천제 벚꽃 명소 조성

사업비 5억 투입…녹색쌈지숲·복합산림경관숲 조성 완료

영암군은 최근 군서면 상대포역사공원에 녹색쌈지숲, 확산 계천제 회전교치로에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을 마쳤다.

군은 도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겹벚나무 등 4종 331그루 나무와 금계국·사스타메이지 9만 본을 심었다.

이번 숲 조성지는 지역 대표 벚꽃 관광지인 왕인박사유적지 주변 상대포역사공원, 영암과 순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서영암인터체인지(IC) 인근 확산면 계천제 구간이다. 군은 생활밀착형 녹색 휴식 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봄 영암군민과 여행객들에게 산뜻한

불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포역사공원은 왕벚나무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겹벚나무, 수양벚나무, 수사해당화를 심어 쌈지숲을 조성했다.

확산 계천제에는 물길과 제방의 선형을 살리고, 봄철 개화를 대표하는 수양벚, 겹벚, 왕벚나무를 심어 국도변 벚꽃 경관축을 형성했다. 군은 상대포역사공원을 중심으로 관광 벨트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벚꽃 관광 로드를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천상현 셰프의 ‘영암 맛집’, 베이커리 카페 ‘누고입이 즐거움’과 연결해 관광명소로 키우는 방침이다. 영암=현창국 기자 hck1342@

무안,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 평가…4년 연속 선정 영예

무안군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으로 무안군은 2022년 이후 4년 연속 우수기관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군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물가 안

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쓰레기봉투 가격과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했다.

이와 함께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환급 지원 이벤트를 추진하고, 물가모니터제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물가 동향 관리에 나섰다.

김산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이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